

“컴퓨터한글 이대로 좋은가”

한국전자출판정보학회 주최 제2차 세미나서 발표

한국전자출판정보학회(회장 金班熙)는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컴퓨터 한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열었다. 한글이 컴퓨터에서 운용될 때의 여러 상황을 다각도로 살피자는 뜻에서 가진 이번 세미나에는 신구전문대의 이기성교수와 이주대학교의 최경희교수, 중앙경제신문사의 김동훈이사 등 3명의 주제발표와 종합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한글 특성 살린 한글코드 표준화 주장

첫번째 발표에 나선 이기성교수는 ‘한글과 CTS’라는 주제 아래 한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한글코드 표준화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교수에 의하면 한글코드란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시하느냐를 약속한 부호인데, 현행 KS규격 한글코드는 일본식이라서 표현할 수 없는 글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월똥하다’라고 발음이 나지만 월등이라고 쓴다’의 원고가 있다면 KS규격 한글코드로는 ‘똥’자가 안 나오거나 ‘아래아(·)를 사용한 ‘ㅎ’이라는 글자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한글의 특성 즉 음소가 모여 음절을 이루고 음절이 모여 단어를 형성하는 초·중·종성의 조합에 의한 글자꼴 특성을 무시하고 일본글자의 완성형 글자꼴의 특성에 맞춰 한글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된 KS규격 한글코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80%밖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KS한글코드에 없는 글자는 그냥 빈칸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게 된다. 결국 “일본이 만

든 데이터베이스에 일본식 한글코드를 사용한 한글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일본이 만든 CTS프로그램에 일본식 한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사 CTS를 하고, 정부의 자료를 정리하는 행정전산망도 일본식 한글코드로 작성되고 있으니 그 각각의 사용범위에서 누수되는 손실은 간단히 무시할 것이 아니다. 게다가 국민학생과 중고생이 사용하는 교육용컴퓨터조차 이러한 완성형 일본식 한글코드로 제작되고 있으니 그 심각성은 중대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어와 달리 초·중·종성을 조합, 한 글자를 만드는 한글의 특성을 살린 조합형 체제로 한글코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결론적으로 이기성교수는 “지금이라도 표준 연구소에서 제정하고 공청회에서 발표한 KSC 5601 한글표준 코드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즉시 한글의 특성을 살리고 한글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한글 코드로 고치라”고 요구하면서 한글의 모아쓰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합형으로도 국제표준의 개념에 맞출 수 있음을 주장했다.

‘출판의 신사고’로 전자출판시대에 대비

이어서 ‘탁상출판’(DTP)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최경희교수는 전자출판 및 탁상출판에 대비한 우리식의 컴퓨터문화 정착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최경희교수는 정보통신의 확산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 종래 출판개념으로부터 확대된 전자출판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 시대의 퍼스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시대의 전자출판의 개념에 의한 탁상출판의 개념을 설명했다. 즉 이제까



지난 5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전자출판정보학회 학술세미나.

지의 인쇄 위주의 개념이 국한됐던 전자출판이 실제 사용자의 생활도구로서 활용되는 탁상출판 개념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전자출판은 기술자료 문서, 여행안내 책자와 같이 문서를 출간하는 전문출판 시스템과 탁상용 전자출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정보의 검색과 원천관리, 문서처리, 환경의 호환유지 등의 일이 중요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탁상출판은 단순한 에디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시스템과의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

최경희교수는 다시 출판매개체면에서 인쇄출판과 CD-ROM과 같은 전자 매개체로의 출판을 분류하여 설명했다. 여기서 인쇄출판은 편한 독서, 손쉬운 주석달기, 독서 속도면의 우월성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장 및 통신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종

이에 인쇄된 출판물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자료를 재입력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최경희교수는 “문서의 관리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혹은 전자매체의 발전에 따른 출판의 변화보다도 출판 그 자체에서의 기본 개념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매개체로의 출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종이에 정보를 배치하고 효과를 내는 것만이 출판이 아니라 출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내어 얻은 아이디어를 출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완성해가겠다는 ‘출판의 新思考’ 원칙이 종이 인쇄출판 못지않게 새로운 전자매체로의 출판을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문서와 글쓰기가 바로 전자출판의 일부분이며, 탁상출판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탁상출판이 그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한글코드 문제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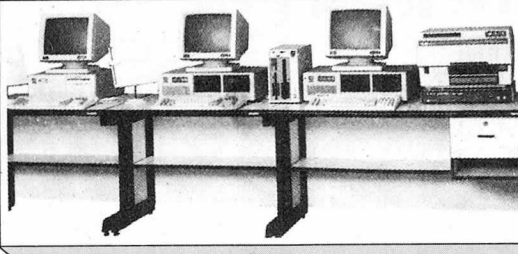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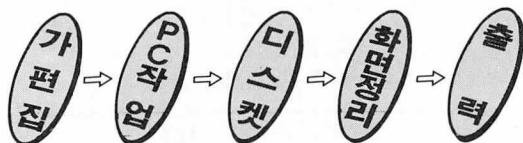
출판의 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쇄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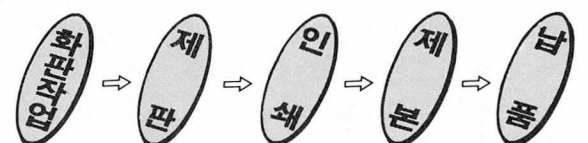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픽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등과 서체, 글꼴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쇄지로 출력가능
- 인쇄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티브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다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탁상출판과 기존 사무자동화 시스템과 통합하는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

정보체제 갖추기 위한 DB구축 역설

한편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김동훈이사는 '신문사와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로 신문사에서의 정보축적과 뉴미디어, 전자라이브러리 등에 관해 발표했다. 김이사는 신문이 매스컴의 핵심이라고 볼 때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현저한 발전을 이룩한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80년대 들어 활판인쇄에서 CTS로의 이행은 혁명적인 영향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신문제작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등 뉴미디어기능을 전제로 해서 기술적 연속성을 요구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 미국에서 '컴퓨터가 도와주는 저널리즘'이란 뜻으로 새로이 등장한 CAJ란 용어처럼 CTS에 의한 화상정보처리, 전송기술의 진보 등은 저널리즘을 활성화하는 그래픽뉴스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

김동훈이사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CTS가 도입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로 예상되는 것으로서 신문기사의 입력방법을 꼽는다. 한자권인 우리나라는 한자입력 때문에 워프로 사용이 훨씬 늦어지게 된다는 것. 하지만 기사의 직접 입력은 신문정보를 기간으로 해서 종합정보산업화하는 데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지사·지국의 기자가 워프로 작성하는 원고가 데스크를 거쳐서 통신회선으로 직접 본사의 전산제작시스템에 송고하여 축적되면 본사의

데스크는 단말기의 화면에 원고를 불러내 화면상으로 손질을 한 뒤 다시 전산시스템으로 돌려보낸다. 편집담당자는 데스크의 손을 거친 기사를 기사조판용 대형스크린에 불러내서 레이아웃을 하게 되므로 입력, 교정의 시간이 단축된다는 논리다.

한편 김이사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정보 가운데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선택·가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로 재창출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신문사나 통신사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인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한데, 신문사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이제까지 스크랩복에 의존해왔던 뉴스의 배경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신문의 역할에 효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또다른 활용으로 전자도서관을 든다. 21세기의 신문사가 지향하는 방향은 종합문자정보기관으로서 미디어 믹스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기관, 판매경험이 있는 기관과의 제휴도 필요하다. 또한 각종 뉴미디어에 대응하는 종합정보기관으로서의 신문사 위상은 곧 DB를 중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의 대응에 달려 있기도 하다. 그러자면 새로운 DB구축을 위한 정보학과 오랜 자료축적 경험, file의 서지적 지식 등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주제발표에서는 신문사의 DB가 자사신문이나 출판제작용 중심으로 이뤄지되, 취재나 외신뉴스 등을 뒷받침하는 배경자료로서 뉴스라이브러리 또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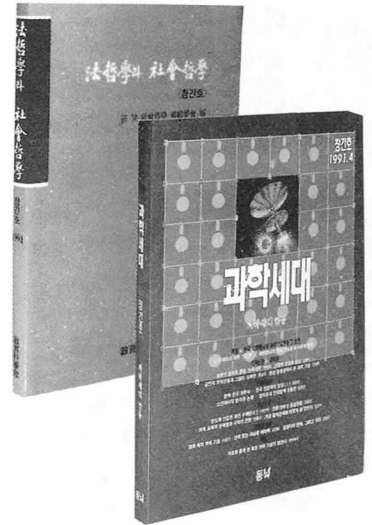
동인지 성격 짙은 전문지 둘

무크 「과학시대」·「법철학과 사회철학」

과학기술시대를 맞아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과학기술의 현실문제들을 실천적 입장에서 논의한 무크지 「과학시대」(동녘)와 법과 종교·일반철학과 사회철학의 연구동향을 살핀 학회지 「법철학과 사회철학」(교육과학사)이 창간됐다.

「과학시대」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성격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모인 '과학시대' 동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과학기술 개별분야의 명암을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출발한 무크지. 이번 창간호에는 '한국사회에서의 과학기술론과 그 실천'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마련, 일제시기부터 해방정국까지 우리 과학기술이 걸어온 길을 살폈다. 또한 기획논단으로 실은 '과학의 토착화운동, 민족과학'(박성래) '신과학운동과 오살'(김영덕) '급진적 과학운동과 그들의 과학관'(홍성욱) '환경운동론에서 본 과학기술'(안병욱) 등은 최근 과학기술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흥미롭다.

한편 「법철학과 사회철학」은 '법 및 사회철학 한국학회'(회장 徐慶玟)의 공동연구내용과 국제학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하여 엮은 학회지. 창간호에는 '법과 사회'에 관한 견해를 밝힌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아르니오교수의 논문을 번역해 실은 것을 비롯해서 '독일에서의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논의동향'(랄프 드라이어)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본 의료·법·인격'(야사키 미쓰쿠니) 등 외국학자들의 논문 5편을 실었



다. 국내 논문으로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하여'(정해창) '법과 실천이성론의 동서양 비교'(최종고) '법과 인간에 대한 법신학적 이해'(지승원) 등 5편이 수록됐다.

한편 '90년도 일본법철학회 참가 후 '극동의 법철학 현황과 전망'을 기고한 김철수교수(서울대 법학)의 글과 '에디버러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 대회 참가기'(최종고)를 수록, 세계 학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 관련서적의 서평 4편도 실었는데, 독일서 발표된 「한국에서의 독일법 수용」(Zur Rezeption des Deutscher Rechts in Korea)에 관한 서평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법철학과 사회철학」은 앞으로 국내외의 연구활동과 해외 학문경향에 관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할 예정이다.

2탄, 드디어 출간!



농부(마이아)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결프전쟁, 이라크전쟁! 우주여인 <셈야제>가 이미 15년전에 예언했습니다.

플레이아데스성단에서 환상의 UFO를 타고 온 우주여인 <셈야제>가 이미 15년전에 농부(마이아)에게 페르시아만 전쟁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석유파동, 정치가 희생, 항공기사고, 에이즈, 제3차 세계대전 등을 예언했던 내용들이 놀랍게도 속속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I)편, (II)편

우주여인 <셈야제>와 농부(마이아) 이야기
오다가 모시아 역을/정우인 옮김/값 3,800원

●MBC-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아)와 우주여인 <셈야제> 이야기 일본 N.TV에서 농부(마이아)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 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 <셈야제> 이야기! 착각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NASA 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UFO연구가 스티븐스의 우주여인 <셈야제> 이야기
웬델 C. 스티븐스/현선아 옮김/값 3,800원

●2편주요내용 ●북극권상의 기묘한 비행물체 ●외팔의 남자가 찍은 UFO 사진 ●완벽한 독일어로 말하는 우주여인 셈야제 ●플레이아데스인의 언어훈련법 ●순수한 사고가 유일한 길 ●방호용 오존층이 나날이 파괴되고 있다 ●플레이아데스 문명은 지구보다 3천년 앞서 있다 ●셈야제 쓰러지다 ●플레이아데스인의 문화와 생활 ●우주인의 과학 메시지와 현대과학
-선명한 UFO 컬러사진 수록(국내최초공개)-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도서주문 진영서적 : (02)272-5871
을지서적 : (02)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454-7466
FAX : (02)455-9037